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기에

- 인연에 따라 산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타협이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로 용기와 강인함이 필요한 일이다. 인연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불완전함을 인내하며 사는 삶이다.